

컴퓨터 敎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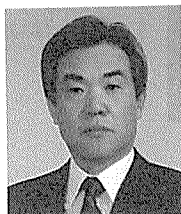
컴퓨터시대의 컴퓨터 敎育이 결코 컴퓨터 기계 자체에만 치우치거나 무조건적인 기술습득이라는 획일화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술습득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사의 수업방법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식보다도 값진 것은 인격이다. 그것의 책임은 1차적으로 교사가 지기 때문이다. 한편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펴보면 학생이 컴퓨터敎育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문을 가지는 가운데 컴퓨터와 친해져야만 한다.

컴퓨터 敎育의 열기와 더불어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컴퓨터 敎育을 확대 실시하기 위한 교사교재시설 등 전반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敎育할 것이냐라는 방향 설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敎育의 여러가지 유형이나 현재의 여건 및 정보화 사회의 전망등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컴퓨터 敎育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컴퓨터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敎育을 하여야 한다. 갑자기 고조된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잘 포용하고 컴퓨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법의 기계라고 과대평가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王昌鍾

인하대 전자계산공학과 교수

컴퓨터를 생활의 도구로 인식하고 실생활에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나날이 값이 싸지고 이용이 간편해지는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일반화되어 갈 것이며 이러한 시점에서 누구나 컴퓨터를 일상생활 및 학습이나 사무처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다.

유능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무가 전산화 되어가고 있는 관청이나 기업에서의 전산 요원 확보는 물론이며 정보산업의 육성이란 측면에서도 컴퓨터 기술인력의 수요는 급증할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 모든 활용이 유효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학교에서부터 기초교육이 자연스럽게 행해져야 한다.

이제 '컴퓨터 시대가 왔다'라는 느낌도 과거로 넘어 가고 있다. 컴퓨터라는 단어 속에는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의 의미를 강하게 풍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 교육도 미래와 연 관해서 실시해야 한다.